

Germany

Photographer

Mona Breede

Achim Mohnée

Writer

Andreas Müller-Pohle

안드레아스 뮐러 폴(Andreas Müller-Pohle)은 독일 현대사진 예술철학인 유태파인공모디에르 매지진의 변형인 편집자이다. 대학에서 철학의 철학과학을 전공했고, 미디어 테크닉으로도 활동 중이다. 일련의 프로젝트는 사진의 개념의 깊은 곳에 중점을 두었고, 더 나아가 프로 비주얼인 그리고 1990년 중반에 시작한 디지털, 8천여, 정치학 보드의 사용을 연구하였다. 최근 작업으로는 물의 무게로 디플로마의 중점의 주요도시를 정렬하여 묘사했다. 출판업으로서는 미디어 철학자 빌헬름 폰 스톨의 작업들을 출판했고, 사진의 중요한 철학이 포함된 미디어 연구 20개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2001년에 the Institut, De Yvona Foundation에서 발행하는 유럽적인 포토그래피 상을 수상했고, 사진이론에 관한 다양한 저서를 쓰고 강의도 하고 있다. 사진가들을 위한 워크숍인 에틀링의 Eye-Mind를 열고 있으며 국제적인 사진행사의 대담어도 자주 참여하고 있다.

요한 양정(Justin-Jung Yang)은 원래 Y&G Art 디렉터로, 미국, 프랑스, 슬로바키아, 러시아, 포르투갈 등 세계적 사진행사의 심사위원 및 프로그래머로 활동하여 선정, 편집, 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럽의 권위 있는 사진잡지 유럽적인 포토그래피 매거진의 편집위원이며, 2011년 서울사진축제 운영진 관계자이기도 활동하였다. yangj@gnail.com

글 | 안드레아스 뮐러 폴, 기획·편집 | 조연영(정), 디자인 | 서버른기자

세계 각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전문가(디렉터/큐레이터/편집장)들이 자국 현대사진의 경향과 주목하는 사진가들을 소개한다. 날로 빨라지는 디지털 노드는 Y&G Art의 디렉티브인 양정이가 기획하고, 전세계 12개국의 사진전문가들이 차례로 필어한다. 아홉번째인 독일편에서는 유럽적인 포토그래피 매거진의 발행인 겸 편집장인 안드레아스 뮐러 폴이 독일 현대사진의 경향과 더불어 모나 브리디와 아힘 모흐니 두 사진가들을 소개하는 글을 보내왔다.

보통 독일 사진에 관해서는 두 가지 특징들이 이야기된다. 두 가지 모두는 1920년대와 30년대의 신즉물주의운동에서 기원한다. 첫번째 특징은 이성적인 것으로, 방법론과 시스템에 대한 것이라면 두번째는 감정적인 것으로, 사진의 냉정함과 객관성에 관한 것이다.

산업구조들을 유형학적 사진으로 기록해 1970년대에 충격을 야기했던 베르트(Bernd)와 힐라 베허(Hilla Becher) 부부, 그리고 이들에 앞서 독일 사진의 독자성을 예언하고 개척한 존경받는 인물들로 사진가 아우구스트 산더(August Sander)와 칼 블로스펠트(Karl Blossfeldt)가 있다.

베르트 베허와 힐라 베허는 독일 사진의 독특한 전설이 인 뒤셀도르프(Düsseldorf) 학파를 태동시켰다. 그 학파의 가장 유명한 사진가로는 안드레아스 구르스키(Andreas Gursky), 토마스 루프(Thomas Ruff), 토마스 슈트루트(Thomas Struth) 등이 있으며, 때때로 이들을 비호는 루도 슈트루프스키(Struffsky)라고 축약해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독일 사진에 대한 이런 간단한 공식은 예술작품의 유통을 장악한 예술시장에 만든 발명품이자 단순히 베르세데스가 가장 대표적인 독일자일 뿐 아니라 유일한 독일자이라고 믿게 만들어진 것과 비슷한 미디어 전략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사진을 포함한 독일 문화는 이보다 훨씬 다양하며, 어쩌면 뒤셀도르프 학파에 속하지 않은 다수의 사진가(몇 명만 언급하면 예센, 카셀, 또는 레이프지그), 스타일의 다양성, 국제성과 개방성 등처럼 정확히 그와 반대되는 특징들을 지닌다. 1970년대와 80년대 독일 예술사진의 르네상스와 이후 현대예술로의 변이에 이어 현재는 새로운 표현수단이 화두로 떠오른다. 초창기에 주로 미학적인 야심과 프로그램으로 고취된 예술사진에 대한 접근방식은 이제는 대부분 고갈된 것처럼 보인다. 실내 장식(Decor)과 키치(Kitach)라는 복합적 형태 속에서 발견되던 이러한 접근방식은 이제는 내용에 대한 집중,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로부터 가져온 소재와 주제-사회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주제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이어지며 종종 복잡한 작업 형태로 표현된다. 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주목할 만한 경향 즉, 형식주의에서 내용주의(Contentism)까지, 미학에서 새로운 종류의 조사성 다큐멘터리 사진으로까지 나타난다.

안드레아스 뮐러 폴이 주목한 독일 사진가 모나 브리디 & 아힘 모흐니

이러한 경향과 밀접하게 뒤이어 사진기술에서도 작품에서 인터페이스까지 급격한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아날로그 예술사진의 시대에 결정적 특징들도 유지했던 '자동회귀성'(Autoreflexivity, 움베르토 에코)과 자족은 디지털 시대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대신 오늘날 사진은 다양한 진입점을 가진 개방적 모듈이며, 그 모든 것들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 게다가 우리는 전반적인 사진 기술의 발전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넷 포토그래피(Net photography, 인터넷에서 배포되고 수용되기 위해 특별히 창작된 사진)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오멘트(계기/요소)를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의 유티리티스 네트워크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영역들이 이용 가능해지는 중이다. 이 과정은 오래 전부터 시작됐지만, 우리는 주류에 의해 지배되는 규칙, 베스트셀러 문화 그리고 그것이 촉진하는 전체로서의 문화 빈곤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 반항적인 의식이 필요하다. 오늘날 사진은 독일 예술계에서 여전히 가장 대중적이고 생동적인 수단이다. 예술 서적시장에서 거대한 인디 붐이 일어나고, 전시에선 사진이 항상 포함하며, 교육에서도 대학의 학위 프로그램과 동등하게 이용 가능한 사립 교육과 워크숍이 번성하고 있다. 여기에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수단이 사진의 역할에 도전할 수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다.

모나 브리디(Mona Breede)와 아힘 모흐니(Achim Mohnée)는 구체적인 명화한 방법론을 이용해 현실의 탐구의 조명에 관심을 두고 있는 독일 사진의 중심 세대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된 관심은 미학적인 방법 자체에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이 탐구하는 현실의 영역들은 조사성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에 의해 종종 타락되는 것처럼 직접적인 사회적인 이슈도 아니다. 브리디와 모흐니는 독창성과 개성으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독일 사진의 광대한 지평에서 두 개의 분명한 위치를 점한다.



Mona Breede

City
Forest Plays



- Cycle II, Shanghai, 2008, C-Print, 95x120 cm
- Cycle I, Shanghai, 2008, C-Print, 95x120 cm
- Aurora, Chicago, 2007, C-Print, 95x120 cm
- Vis à Vis, Chicago, 2007, C-Print, 95x160 cm

모나 브리디

(1968~)의 첫번째 주제는 도시-

터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틀과 배경으로서의 도시-이다. 베를린, 시카고, 세인트 피터스버그, 상하이 등에서 작가는 유사하고 명확한 비전을 담은 이미지들 주의 깊게 선택한다. 그리고 서있거나 걸거나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행인들 앞에 더 조용해 보이는 배경을 통해 그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브리디의 도시 장면들은 어떤 일러지지도 않은 영희의 스틸 장면과 같고, 완벽해 보이는 인물들의 움직임은 우연의 신물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사실 이 달콤스러운 이미지들은 100여장의 개별적인 사진들을 복잡하게 뭉타주된 것이다. 인공적인 건축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게 표현한 이 도시의 소유주들은 정적이나 해석 또는 전체 내러티브를 유추하기에 충분히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믿을 수밖에 없다.

모나 브리디는 종종 빛 대할 아날로그 카메라를 모두 사용하며 디지털 보틀 디지털화시켜 컴퓨터에서 세밀하고 복잡한 작업과정을 거쳐 이미지를 구성한다. 촬영단계부터 작업과정 전반에 걸쳐 복잡하게 조명을 사용하며, 그것만으로 빛과 그림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미술적 현실주의를 자신의 작업에 적용시킨다.

그녀의 숲 작업은 어두운 비밀을 찾아 밝은 도시를 떠난 그녀의 최신 시리즈로, 도시에서와 같은 작업 방식이 적용되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상기시키는 어둡고 친밀한 연극처럼 그녀는 도시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모나 브리디에게 사진은 통찰력과 내레이션, 관찰 그리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기적적으로 만나 함께 융해되는 예술이다.

Mona Breede's

first subject is the city – more specifically, the city as a framework and backdrop for the people who move within it. Whether in Berlin, Chicago, St. Petersburg or Shanghai, the scenes are similar, and indeed are carefully selected for the desired expressive vision: a preferably quiet background in front of which all kinds of standing, walking or motorized passersby go about their business.

Breede's city scenes look like stills from some unknown film, abuzz with figures whose constellations are too perfect to be the product of chance. And as a matter of fact, these baffling images are high-grade aggregations, complex montages of up to 100 individual photos. Artificial constructs they may be, but if we didn't know it, we'd be tempted to believe them, because these urban microcosms are staged plausibly lends her work the touch of magical realism that is seldom caused by the subjects themselves, but rather the result of interplay between shadow and light.

She uses this same method in her most recent series, in which she leaves the bright city in search of the dark secrets of the forest. Even more so than in the city scenes, her staging comes alive here, like a dark and intimate play that might remind some of their own childhood. For Mona Breede, photography is an art where perception and narration, observation and poetry miraculously meet and melt together.



● Aguzzi Majesty, Forest Plays, 2012, C-Print, 83x120 cm
 ● Troubled Water, Forest Plays, 2012, C-Print, 85x120 cm
 ● Atank, Forest Plays, 2012, C-Print, 89x120 cm